

□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 2차 공모 분야별 심의 총평

문학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_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_2차, 국제예술교류지원_2차
- 회의일시 : 2017. 04.20(목) 15:00~17:3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손동연, 이승하, 정희성, 조경란, 홍기돈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2차>

이미 항목으로 제시된 심사기준을 존중하되,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덧붙이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해당 분야의 지원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였던 바 있는 경험자의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제시된 심사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 세부 기준과 마련의 근거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참가 이유와 계획안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언어 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적응기간만 가지다가 돌아오고 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제 교류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가 우리 문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도 평가해야 한다. 지원의 목적은 결국 한국문학의 발전으로 귀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그동안 지원받았던 지원자 및 단체보다는 새롭게 지원한 개인과 단체에 배려한다. 이러한 평가가 형평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실험정신에도 부합하며, 향후 한국문학 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에 신청한 지원자는 모두 18인이었고, 파견이 예정된 지역은 5곳이었으며, 각 지역 별로 1인씩 파견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심의위원들은 파견대상처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지원자가 한 명밖에 되지 않아 비교대상의 부재로 말미암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지원사업의 내용이 꽤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신뢰가 갔으며, 이미 진척해 놓은 사항도 지원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인터뷰의 성과를 기록물 형태로 남기겠다는 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쪼록 작가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획득하게 될 성과 위에서 창작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신청건수는 10건이었으나, 지난 1차에 신청하였다가 떨어진 지원서를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신청한 사례가 여럿이었으며, 서류가 미비하여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간의 공유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 이유와 계획안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국제 교류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가 우리 문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도 평가해야 한다. 지원의 목적은 결국 한국문학의 발전으로 귀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동안 지원받았던 지원자 및 단체보다는 새롭게 지원한 개인과 단체에 배려한다. 이러한 평가가 형평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실험정신에도 부합하며, 향후 한국문학 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도전정신이 돋보이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은 위의 세 번째 기준과 관련이 있다.

※ 심의가 끝난 후 심의방식에 관한 정책 제언을 모았으니 이를 덧붙인다. 첫째, 다른 심사의 경우 등단 몇 년 이내 등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문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원자 및 지원 단체의 이름을 가리고 심의를 진행한다면 내용만을 두고 판단해야 하므로 좀 더 공정을 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_2차,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2차, 국제예술교류지원_2차,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 회의일시 : 2017. 4. 25(화) 10:00~21:00
- 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고충환, 박정구, 이지호, 이태현, 호경윤

2017년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사업 2차 지원심의에는 총 5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으며,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2차,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2차의 5개 세부사업을 심의, 선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채점하여 다득점 순으로 선정자를 공정하게 결정했다. 공통적으로는 대관료나 참가비를 자부담하는 사업, 상업적인 목적을 띤 사업보다는 교류기관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국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총 5개 세부사업을 심의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20%),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지원 심의시에는 추진과정과 실현 가능성, 교류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여부, 국제적인 파급 효과를 주안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단순한 교류 전시나 연례적 행사보다는 기획력과 실험성이 돋보이는 사업에 가점을 두었다. 또한 사업 안내 공고에 적시된 국제교류 2차 지원 대상 기간(2017.7.1.~12.31 내에 시작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결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총 98건 신청사업 중 21건을 선정하고 총 28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한 지원결정액의 경우 항공료 및 전시나 행사 관련 직접비용 등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이 가능한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자율형 사업은 개별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2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이러한 심의 기준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레지던스 주관기관과의 협약 확정 여부, 사업 기간의 적정성 여부 및 해당 레지던스의 국내외 미술계 파급효과 및 참가 예술가의 예술적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업 안내 공

고에 적시된 국제교류 2차 지원 대상 기간(2017.7.1.~12.31 내에 시작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결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총 48건 신청사업 중 18건을 선정하고 총 8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한 공공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해 항공료 및 숙박비, 작업 직접경비 등 필수적 용처의 예산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식비나 일비, 현지 교통비 등 단순 체제비 사용은 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국제교류리서치지원 사업은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30%), 사업내용의 예술성(30%),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20%),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중장기 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획에 수반되는 리서치 자체를 신청해 프로젝트의 목적이 다소 모호한 경우나, 타 유형의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가급적 배제하였으며, 사업공고시 안내된 국제교류 2차 지원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결격 처리했다.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 및 완성도 있는 국제교류사업 개발이 기대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13건 신청 중 3건을 선정하고 27백만원을 배정하였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2차>

아르코국제레지던스지원 사업은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40%),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현가능성(30%),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따라 심의하였다. 사업 신설 취지에 따라 쌍방향 교류의 가능성 확장에 최대한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했다. 단순한 레지던스 장소 제공보다는 지속적인 국제 교류 확대 및 네트워킹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공고시 안내된 국제교류 2차 지원 대상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결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총 2건 신청 중 1건을 선정하고 35백만원을 배정하였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2차>

국제주요플랫폼진출사업은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심의기준인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40%),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30%),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30%)에 따라 심의하였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현대 미술계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전세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 미술의 효과적 홍보 및 국제 진출 가능성이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미 주최 측의 공식 초청이 이루어진 작가를 중심으로 현지의 전시 여건과 출판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 결과 총 6건 신청 중 5건을 선정하고 82백만원을 배정하였다.

시각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_2차, 국제예술교류지원_2차,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Arko-Pams협력지원_2차

○ 회의일시 : 2017. 4. 24(월) 14: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

○ 심사위원(가나다순) : 김준희, 신현숙, 이상진, 윤만식, 허순자

1. 심의총평

국제예술교류지원 연극분야에서는 <국제예술교류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아르코-팜스 협력지원> 총 5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 1)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최대한 여러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 2) 지역의 연극인들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였다.
- 3) 국제교류 관련 사업인만큼, 초청장 또는 사업추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증빙서류가 없는 단체들은 향후 공정성의 시비가 없도록 엄격하게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 세부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총 32건의 신청 건수와 9억 3천만 원의 신청금액에 비해 배정예산이 한정적이었다. 많은 단체를 지원하고자 논의하여 총 12건을 선정했다. 대체적으로 해외공연에 대한 신청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신청단체의 역량, 신청 프로젝트의 국제적 파급효과, 실행 가능성이었다. 또한 지속성을 가진 행사들도 고려하였다.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지 파트너 기관의 지원조건, 체류기간,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배정하였다. 또한, 해외 예술단체 및 예술가를 초청하는 국내활동이라면 지역에 따른 차등적 항공료, 숙박기간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예술가가 희망하는 해외 레지던스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지 레지던스의 초청장이나 참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또한 항공료, 숙박비 등 신

청 예산안과 사후 창작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은 단체들로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2018년 본 사업에 대한 준비사업으로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의 수월성과 충실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실행가능성과 해외공연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성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신청단체가 초청장 등 필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제외되었다. 선정된 단체들의 신청 프로젝트들은 리서치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준비 또한 잘 되어있다고 판단하였다. 기획리서치 지원은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예산 확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2차>

사업목적은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최를 지원하여 예술가들 간의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주요 선정기준으로 적용했다. 다만 레지던스 개최를 통한 해외 예술가들과의 교류 성과가 필히 환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RKO-PAMS 협력지원-2차>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초청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작품의 해외초청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신청단체는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이며, 예산배정도 적합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선정되었다.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_2차, 국제예술교류지원_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Arko-Pams협력지원_2차
- 회의일시 : 2017. 4. 18(화) 14:00~18: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서령, 김제영, 이지현, 임수정, 황규자

무용분야의 국제교류 관련한 사업은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ARKO-PAMS 협력지원-2차」, 총 4가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총 56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으며,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종 26건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하였다.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무용부문은 40건의 신청 건수와 8억이 넘는 신청액으로, 현장의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과 의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교류 지원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아래와 같은 심의 기준으로 최종 14건을 선정하였다.

첫째, 통상적으로 해오던 교류에서는, 진일보하려는 의지가 사업의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둘째, 새로운 사업은 해외 시장개척으로서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셋째는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교류여건’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류사업 내용이 단체 창작역량에 뚜렷한 자극과 향상의 계기가 되는가를 검토하였다. 특히 전년도 사업의 결과로 초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우대하였다. 선정된 14건에 대한 지원액 결정은 장르 형평성을 검토하여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1차 지원 탈락 단체가 다시 지원한 10건, 초청장 미비 3건, 한 단체가 다건 선정된 1건 등 총 14건이 제외되었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리서치 지원 2차 무용부문은 6건의 신청 건수 중 초청장 미비 2건을 제외하고 4건을 대상으로 심의 하였다. 장기적인 계획성과 리서치 이후의 실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해외 레지던스 2차 무용부문은 7건의 신청 건수 중 한 단체가 다 건 선정된 경우와 국제교류의 의미보다는 개인 연수활동의 성격이 강한 2건을 제외하고 심의하였다. 소액 신청인 경우가 많아 신청액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ARKO-PAMS 협력지원-2차〉

아르코-팜스 협력지원 2차 무용부문은 3건의 신청 건으로 선정 경쟁이 가장 낮았다. 대부분 예년 팜스 선정작이 지속적으로 공연 요청을 받는 경우로 3건 모두 선정하였다.

〈총평〉

5인 심의위원이 심사 후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지원 심의가 소액 다건 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선정 건수를 줄이고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주로 초청장 미비로 서류 탈락된 단체들은 사업내용이 훌륭함에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였다. 서류 완비에 만전을 기하기 부탁드린다.

셋째, 1차 국제예술교류지원 심의에서 탈락한 건이 2차에 재지원한 10건은 전체의 1/4로 매우 많은 건수였다. 이에 해당된 사업들 역시 단체의 역량과 사업 내용이 훌륭한 경우가 많았다. 동일 사업을 같은 해 기금신청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탈락 사유로 공지되어 있으나, 지원 공고 시 보다 구체적인 공고와 강조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신청과 탈락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넷째, 한국무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청 건이 적어 장르 안배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려 하였다. 한국무용 분야 국제교류의 다각화,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국제교류의 특성 상 지역 집중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스웨덴, 벨기에 등 새로운 지역에 대한 개인의 진출 노력이 돋보여 고무적이었다.

여섯째, ‘국제예술교류’ 부문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은 현장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욕구를 반증하는 것으로 국제교류 지원의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심의위원 의견이 모아졌다.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_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_2차, 국제예술교류지원_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2차, Arko-Pams협력지원_2차
- 회의일시 : 2017. 4. 24.(월) 10:00~14: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희철, 류경선, 손혜리, 이기균, 장우형

2017년도 2차 국제예술교류사업 음악분야에 대한 심의는 총 5명의 심의위원이 참가하여 ARKO-PAMS 협력지원 1건,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1건,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7건, 국제예술교류지원 48건,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3건 등 모두 60건을 심의하였다. 심의위원들은 미리 집으로 배송된 서류들을 검토한 후 각각의 건에 대하여 상중하로 구분하여 의견을 준비한 상태로 심의에 임하였고 종합토론을 거쳐 각각의 건에 대한 개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후에 전체의 예산 규모에 따른 지원 범위를 정하고 개별적인 지원 금액의 적정성과 조정을 거쳐 최종 각 신청자에 대한 개별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가장 열띤 경쟁을 보였던 국제예술교류지원(48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신청자가 꼭 구비했어야 할 객관적인 서류(초청장, 대관신청서 등등)의 준비가 미진함이 눈에 띄었다. 음악인들이 서류작성에 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심사에 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작성한 신청서는 전체의 1/5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잘 작성한 신청서라 할지라도 심사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둘째로는 지원대상의 부문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참가여부에 있어서 외국인 참가자는 확정된 상태이나 내국인의 경우에 유독 미확정이거나 ‘추진 중’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었는데 자칫 사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여 무산될 경우 피해가 가는 쪽이 외국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업의 추진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물론 한국에 초대되는 외국인의 경우 그들이 오지 못하는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는 식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주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지원의 내용이 ‘국제교류’ 이면 우리나라 예술인이 외국에서 행사를 할 경우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청중 등)이 상당수의 외국인이여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행사의 장소는 국제적인 규모라고 할지라도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 혹은 행사의 내용(레퍼토리 등)으로 보아 해외 주재민이나 동포만 참여할 것이 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토론이 자주 벌어졌다. 한국 문화(고유문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를 소개하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면 이를 지원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신청한 단체의 이름이 한국을 연상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경우이거나, 신청한 내용이 한국 유명기업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미래 핵심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과 협업을 하는 것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냐에 대한 우려 섞인 토론이 있었다. 순수한 예술지원만 생각 할 것이냐 협업을 통한 산업 발전도 생각해야 하느냐의 차이 일수도 있었지만 결국 심의위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원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심의 위원들이 좋다고 생각하여 상위에 포진한 신청서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의 중급의 신청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하위에 포진한 신청자(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청자에게 혜택이 가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심지어는 상위에 포진한 훌륭한 신청내용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은 지원 대상을 최대화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앞으로 이런 획기적이면서 창의적인 계획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기를 바라고 지원 금액도 더욱 확충되어 예술계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음악분야 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_2차,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_2차, 국제예술교류지원_2차,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_2차, Arko-Pams협력지원_2차
- 회의일시 : 2017. 4. 17(월) 10:00~14:00
- 회의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갑수, 모형오, 송미숙, 윤중강, 이재성

이번 2017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2차공모 전통분야 심의에서는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2차>,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2차>,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2차>, <ARKO-PAMS협력지원-2차>에 신청한 사업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 총 69개 사업 중에서 국제예술교류지원 15건,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2건,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1건,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1건, ARKO-PAMS협력지원 2건을 각각 선정하였다.

심의과정에서 다섯 명의 심의위원들은 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 기존에 공고되었던 지원심의기준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현재의 국악과 전통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비슷한 유형보다는 보다 더 다양한 형태가 해외에서 호평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 콘텐츠의 깊이, 경비(지출)의 합리성, 국악(전통) 내 장르배분 또한 고려하였다.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의 일부 지원형태였던 ‘소액다건’ 식의 지원을 지양하였다. ‘소액다건’ 형태의 지원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의위원들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취지에 근거하여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제한된 기금이라는 조건 하에서, 공공기금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의 ‘카운터 파트’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다. 이번에 참가한 단체들은 모두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단체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해외에 대한 경험과 콘텐츠에 대한 우수성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매의 눈이 되어서 ‘엄한 눈길’을 두었던 것은 “ ‘어떤 지역’에서 ‘어떤 파트너’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었다. 이런 시각에 볼 때, 국내활동은 무척 우수하지만, 이번 제출한 서류에 의거해서 볼 때 해외에서의 상황이 이에 부합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아쉽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유무보다는 현장에 대한 인식과 적응을 고려하였다. 지원단체가 해외를 너무 많이 갔다거나, 혹은 그 반대로 국제교류가 전무하다고 해서 선정에 배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앞에 서술한 내용과도 연관이 깊은데, 진정 앞으로 한국전통예술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욱 고심에 고심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사실 한국전통예술이 세계에 알려진 것은 오래전부터였다. 모두 저마다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해외에서 공연, 교육,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지만, 지금까지의 공공기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에 비해서 한국 전통예술의 알려짐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 또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출중한 개인이나 단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선택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국제교류는 궁극적으로 ‘필드’에서의 교류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필드 워크’와 ‘데스크 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국제적인 예술교류에서 ‘데스크 워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필드 워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 단계를 스스로 거치면서, 결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효과를 낼 방법에 대해서 고구(考究)할 필요가 있다. 몇몇 제출자들의 경우는 ‘서류’ 자체를 충실히 했지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교류’와 ‘공연’, ‘교육’ 등 상호간의 커뮤니티의 현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이후 개선을 통해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전통예술 사업들이 보다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